

'에너지 먹는'유리성?

◆찜통더위에 직원도 민원인도 불만

서울 용산구청의 한 여직원은 "에너지를 아낀다며 직원 15명인 우리 과에 선풍기 3대를 갖다 놓고 더위를 견디고 있다"며 "선풍기 바람조차 못 쐬는 민원인들을 보면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경자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은 "부채가 유일한 더위 퇴치 도구"라고 했다.

'유리의 성(城)'으로 통하는 서울 금천구청 청사도 구청 직원들이 때 이른 실내 찜통더위에 헉헉대고 있다. 행정지원과 강성문씨는 "주말마다 대강당을 주민들에게 빌려주는데 덥다고 불평이 많다"고 말했다. 건축비만 3200억여원이 든 경기 성남시청사도 비슷하다. 한 공무원은 "요즘엔 옷을 벗고 일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도심의 오피스 빌딩에서도 찜통더위와 싸우는 직장이 적지 않다. 서울 신문로의 LG광화문빌딩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에어컨을 세게 틀어 겨우 견디고 있다"면서 "문제는 올여름 전기료 부담을 회사가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점"이라고 걱정했다.



▲ 왼쪽부터 작년 3월에 지어진 서울 용산구 신청사, 2009년 11월에 지어진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서울 강남역 인근 GT타워, 서울 청계천변의 센터원 /이덕훈 기자 leedh@chosun.com·연합뉴스



- 서론 탐구동기 및 목적
- 본론 실험설계, 수행방법
 - 1 이론적 배경
 - 2 연구의 가정
 - 3 스텔라(STELLA) 프로그램
 - 4 실험에 사용한 Database
 - 본론 5 모델링 도식화
- 결론 실험 결과 및 결론

서론 - 탐구동기 및 목적

관악구청, 강남역 주변 건물 외 다수의 건물들이 디자인적인 측면을 위해 전면이 유리로 시공됨 - 'Glass curtain wall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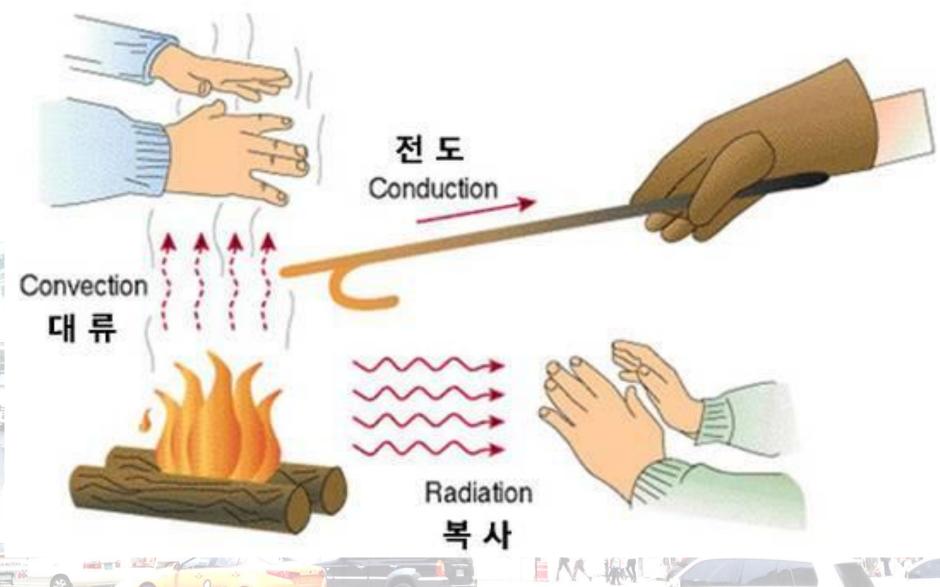


서론 - 탐구동기 및 목적

"전면 유리 건물은 열 효율의 측면에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인식, 정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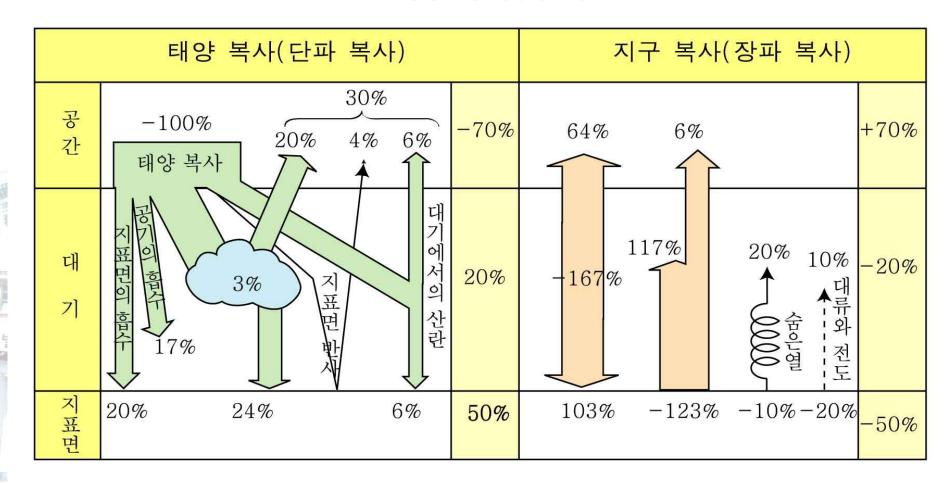
이 생각이 얼마나 타당한지 계산을 통하여 알아보자!!

본론 1 - 이론적 배경



본론 1 - 이론적 배경

지구의 열수지



본론 1 - 이론적 배경

열역학제 1법칙: δQ = δ W+dE

(Solar Radiation) =
$$S_c \times (1-0.5) \times (Area)$$

 $\times \sin(h) \times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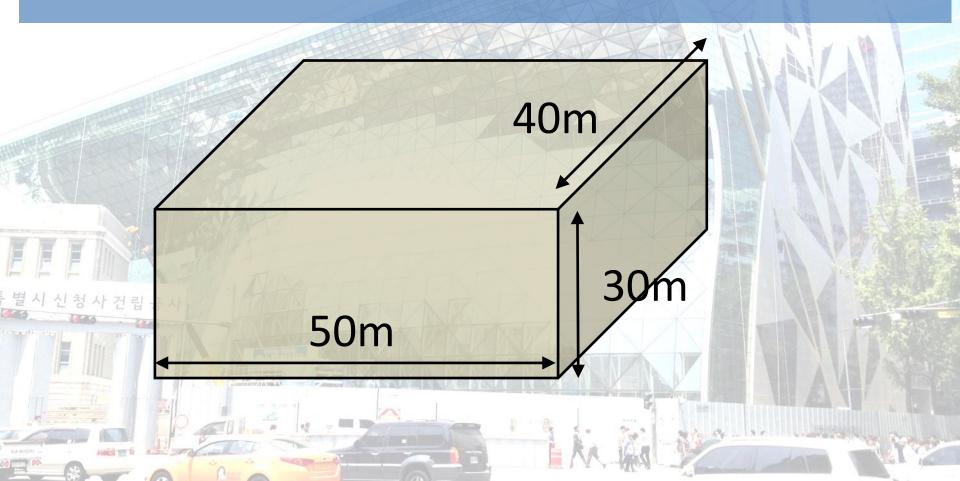
$$\begin{split} &(\text{Conduction}) = \frac{k_{glass}}{L_{glass}} \times (T_B - T_{ext}) \times (Area_{glass}) \\ &+ \frac{k_{con}}{L_{con}} \times (T_B - T_{ext}) \times (Area_{con}) \end{split}$$

(Building Radiation) =
$$\sigma T_B^4 \times (Area)$$

(Building Heat Capacity) =
$$c_{vd} \times \rho_d \times V$$

본론 2 - 연구의 가정

서울 시청 건물의 규격 : 50m × 40m × 30m(높이)



본론 2 - 연구의 가정

- 유리는 태양복사에너지에 대해서 10%를 반 사하고, 나머지는 투과함
- 유리는 태양복사에너지에 대해서 10%를 반사하고, 건물과 외부의 열 교환은 복사와 전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대류는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음
 - 일반건물들은 표면 중 30%를 유리로 가정

본론 2 - 연구의 가정

건물내부 공기는 건조공기(dry air)로 가정!!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도로 가정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도로 가정

'적정온도'를 건물이 적절히 유지한다고 가정

본론 3 - 스텔라(STELLA) 프로그램

스텔라 홈페이지의 본문 text 중 ……

 STELLA offers a practical way to dynamically visualize and communicate how complex systems and ideas really work.

 Mapping and Modeling →Simulation and Analysis → Communication

본론 3 - 스텔라(STELLA) 프로그램

Reservoir와 input/output, converter 등을 이용하여 현상을 수치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간단한 tool.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의 출입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분석해 보 았다.

본론 4 - 실험에 사용한 Database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1981-2010년 동안 (30년) 서울의 하지 및 동지의 최고, 최저 기온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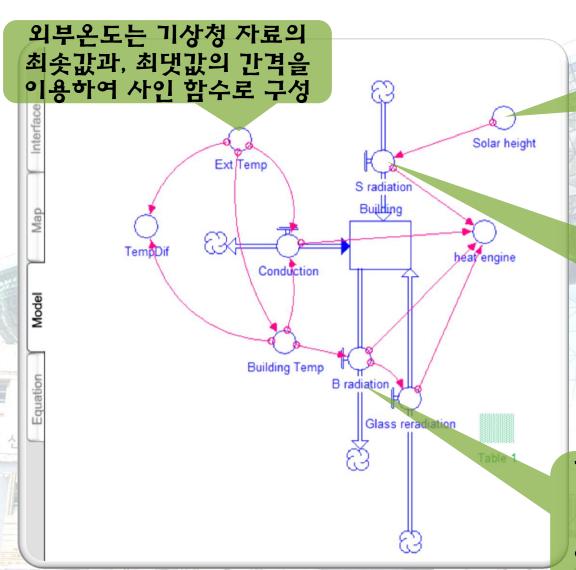
유리의 두메는 4cm, 열전도율은 2W/mK

콘크리트의 두메는 40cm, 열전도율은 1.3W/mK

하지의 일출과 일몰은 5시와 20시

동지의 일출과 일몰은 8시와 17시

본론 5 - 모델링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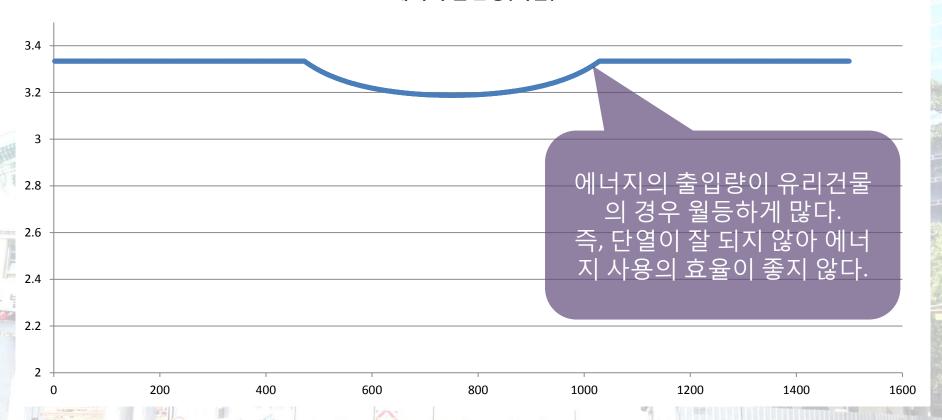
태양의 고도는 하지와 동지 에서의 일출 및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사인함수로 구성

태양복사에너지 중 빌딩에 입사하는 양은, 지구의 알베 도와 공기에 흡수되는 양을 고려하였고, 유리의 알베도 (0.1)도 고려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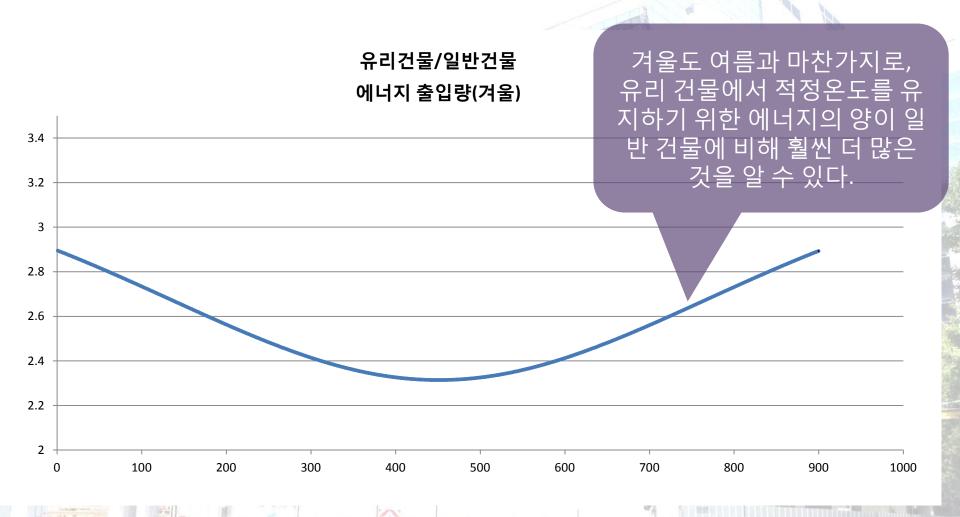
건물은 전도와 복사에 의하여 주위와 열 교환을 하고,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유리에 흡수되어 일부가 내부로 다시 유입(0.25)

실험 결과 - 여름철의 경우

유리건물/일반건물 에너지 출입량(여름)



실험 결과 - 겨울철의 경우



결론

STELLA를 이용한 수치 모델링에서 실내온 도가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비율을 계산해 보았다.

여름(하지)과 겨울(동지)의 경우 모두 유리건물이 콘크리트 건물보다 주변 환경과의 에너지 교환이 많았으며,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약 3배정도 많았다.

결론

유리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에 비하여 열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도와 복사 두 가지 방면에서 모두 불리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특성상 유리의 열 전도율이 더 좋으며, 두메 가 얇고, 복사에너지를 잘 방출하므로 단열성이 콘크 리트 건물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가 중요시 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적으로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였다.

Reference

- An Introduction to Atmospheric Thermodynamics, 2nd edition, 2007, A. A. Tson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7 pp.
-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 천문우주지식정보포털 http://astro.kasi.re.kr/
- 스텔라 홈페이지 http://www.iseesystems.com/
- 관악구청 사진 http://welfare114.blogspot.kr/2009/11/%EC%A7%80%EB%B0%A9 %EC%9E%90%EC%B9%98%EB%8B%A8%EC%B2%B4-%ED%98%B8%ED%99%94%EC%B2%AD%EC%82%AC-%EB%B2%A0%EC%8A%A4%ED%8A%B8-10.html
- 서울시청 사진(배경) http://me2day.net/yuna/2012/06/14/pyl8kel-yr
- 지구 열 수지 그림 http://www.science114.net/tech/board.php?board=scipic&page= 32&command=body&no=189
- · 서론부분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0/201106 2000149.html

